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MULTIMEDIA
NEWS PRODUCER

FAST & FAIR
NEWS PROVIDER

GLOBAL
NEWS FINDER

KOREA'S NEWS H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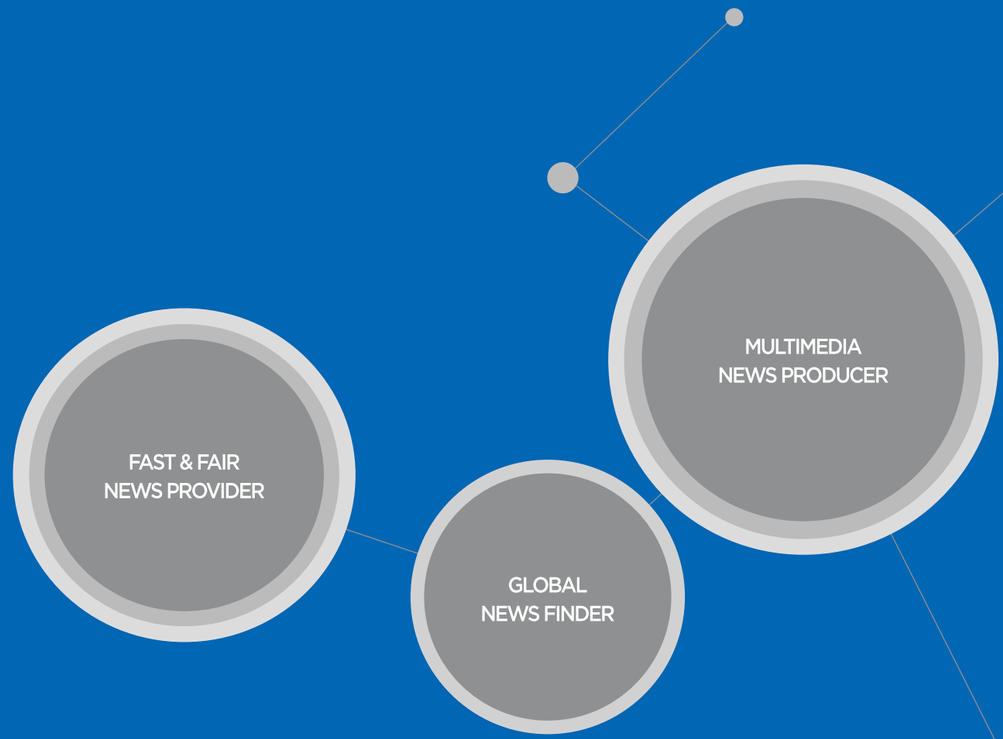
**미국의 AP, 영국의 로이터, 프랑스의 AFP
대한민국의 대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입니다.**

CONTENTS

02 INTRO
04 CEO MESSAGE
06 연혁
08 계열사 & 조직도
10 FAST & FAIR NEWS PROVIDER
12 GLOBAL NEWS FINDER
16 MULTIMEDIA NEWS PRODUCER
20 연합뉴스 Q&A
22 OUTRO

연합뉴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이자
뉴스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 위해

1년 365 일, 하루 24 시간,
단 1초의 쉼도 없이
정보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EO MESSAGE

신속 · 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며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뉴스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대표 뉴스통신사입니다.
무엇보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지위를 부여 받고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취재망을 갖추고,
하루 3천건 이상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 국내외에 전합니다.
나아가 연합뉴스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우리의 시각으로 국내외에 전달함으로써 정보주권을 수호합니다.
또한 한국 소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해외에 전달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창(窓)' 역할을 합니다.

연합뉴스가 생산한 뉴스는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PC,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전달돼 국민의 정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러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신속·정확하고
불편부당한 뉴스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연합뉴스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정확하고 품격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힘을 쏟겠습니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박노황

연혁

**1980년 한국 뉴스의 시작을 알리며,
2015년 뉴스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980's

1980년대 뉴스의 새로운 태동, 연합뉴스

1980.12 합동, 동양통신 등을 통합한 연합통신 창사
1981. 1 창간호 발행
1986. 9 서울 아시안게임 주관통신사 업무 수행
1988. 9 서울 올림픽 주관통신사 업무 수행
1989. 1 연합영문뉴스 50개 해외공관에 송고 개시

1990's

1990년대 뉴스 프런티어, 연합뉴스

1991.11 그래픽뉴스 서비스 개시
1993. 9 연합TV뉴스(YTN) 설립
1998.12 '연합통신'에서 '연합뉴스'로 사명 변경
북한뉴스 전문 '내외통신' 흡수 – 통합

2000's

2000년대 대한민국 뉴스의 희망과 미래, 연합뉴스

2000. 6 금융정보 제공 자회사 '연합인포맥스' 설립
제 3차 ASEM(아시아 유럽 정상 회의) 서울회의
주관통신사 협력 약정 체결
2002. 6 2002 한일 월드컵 주관통신사 업무 수행
2002.12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과 기사 및
사진 수신계약 체결
2003. 4 국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
2004. 3 영상 서비스 실시
2004. 4 중국어 서비스 개시
2004. 5 KTX 영상정보 서비스 개시
2005. 6 부산 APEC 주관통신사 협약 체결
국내 언론사 최초 영문특파원 파견
일본어 뉴스 서비스 개시
2006. 6 아랍어 뉴스 서비스 개시
2007. 3 공항철도(A' REX) 영상 · 정보 서비스 사업 개시
2007. 9 스페인어 뉴스 서비스 개시
2009.10 프랑스어 뉴스 서비스 개시

2010's

2010년대 글로벌 뉴스통신사로의 도약, 연합뉴스

2010. 4 아태뉴스통신사 정상회의
(OANA Summit Congress)개최
2010.11 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통신사 업무 수행
2011. 3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 설립
2011. 8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연합국제보도사진전' 개최
2011.12 보도전문채널 '뉴스Y' 개국
2012. 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관통신 업무 수행
2012. 5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관통신 업무 수행
2012.12 연합뉴스-VNA 공동 보도사진전 개최
2013. 2 연합뉴스-스탠퍼드 아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 9 정전 60주년 기념 사진전
2013.10 연합뉴스 신사옥 준공(종로구 수송동)
2014. 9 인천 아시안게임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2014.10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2014.12 '2014 한 · 아세안' 주관뉴스통신 업무 수행

계열사&조직도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계열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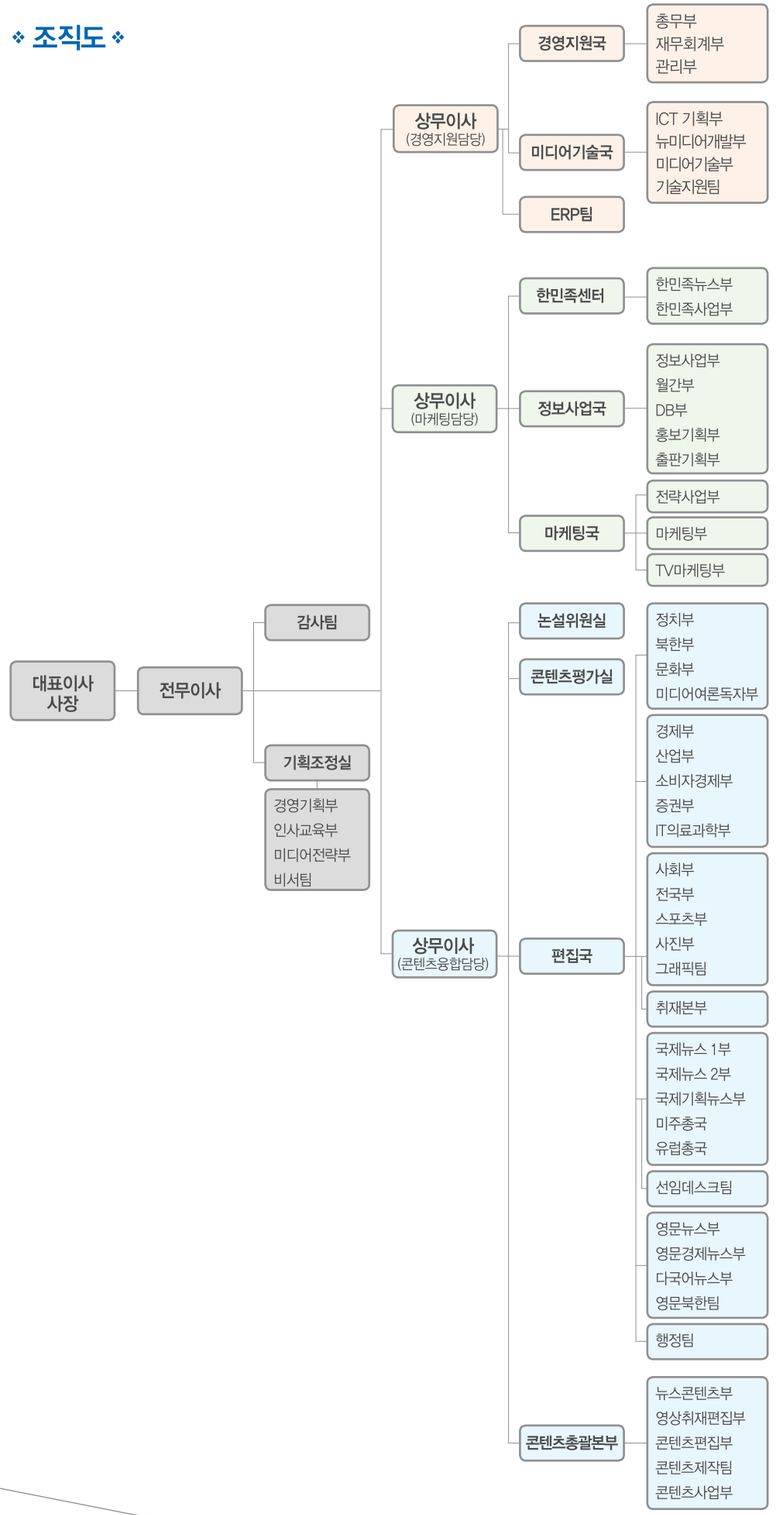
연합뉴스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도전문채널 '뉴스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이블 채널 23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홈페이지 : www.news-y.co.kr

연합인포맥스
금융정보 제공 회사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얼타임 금융 뉴스와 데이터 및 첨단 분석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einfomax.com

㈜연합기술정보
연합뉴스와 연합인포맥스 시스템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자회사입니다.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통일 · 외교 · 안보분야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해
국내 정부기관과 기업체, 연구소 등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조직도 ❖



FAST & FAIR NEWS PROVIDER

국내 취재망 580
취재진 **580**여 명, 지역 **13**개 취재본부, 주재지역 **20**곳

뉴스 콘텐츠 3,000
글, 사진, 그래픽, 영상 등 하루 **3,000**여 건을 웃도는 뉴스 콘텐츠

국내외 뉴스 배포처 930
언론사, 기업, 뉴미디어, 정부 및 지자체 등
930여 곳에 뉴스 배포

580 **국내 언론 중**
여 명에 이르는 **최대 취재진!**
국내 최대 580여 명의 취재진이 국내 언론사는 물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뉴미디어 등에
24시간 신속 · 정확 · 공정한 뉴스 콘텐츠를 공급합니다.

GLOBAL NEWS FINDER

외국어 뉴스 서비스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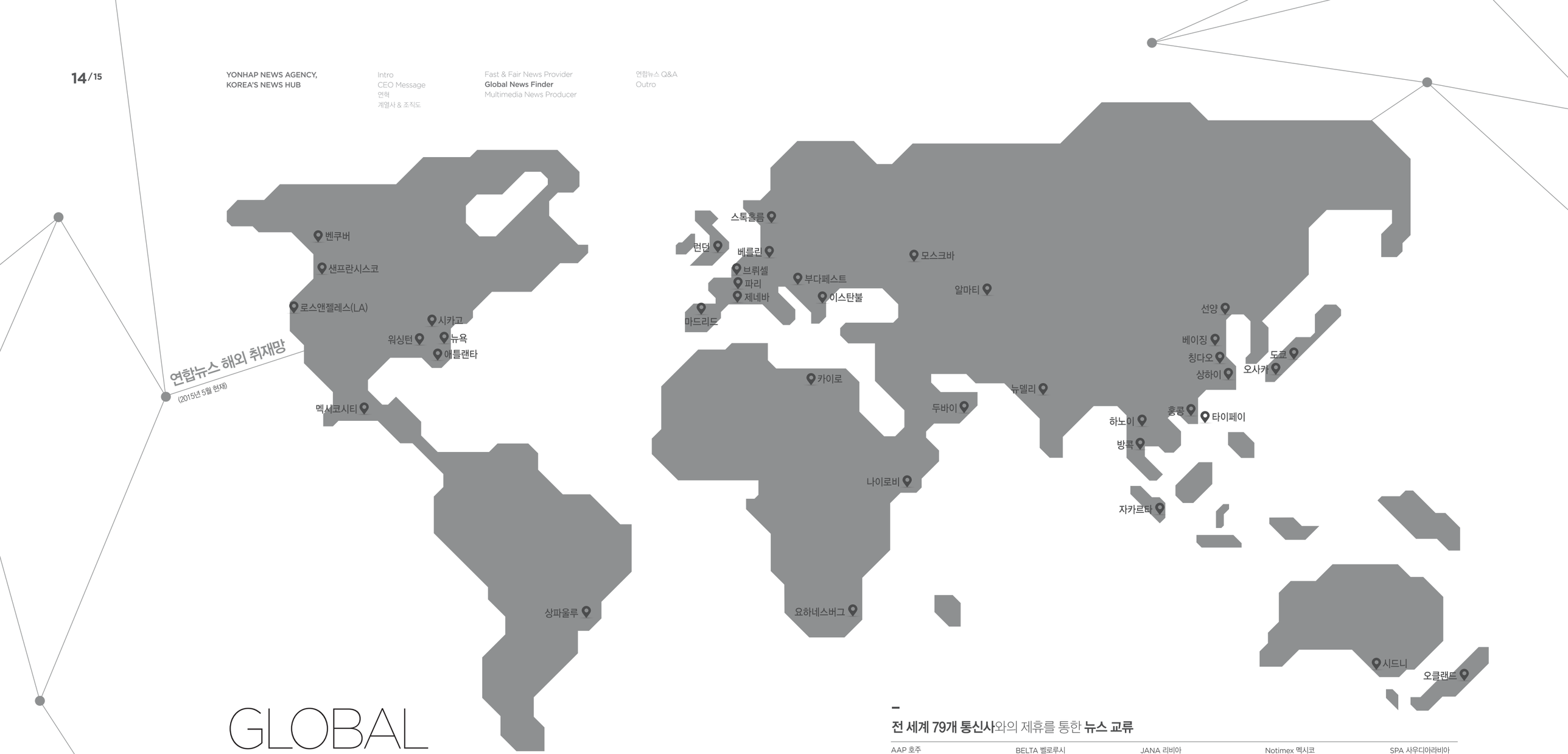
해외 취재망 60
전 세계 28개국 38개 지역에 총 60여 명의 특파원과 통신원 파견

해외통신사 제휴 79
전 세계 66개국 79개 해외 통신사와 국제적인 기사 교류

60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여 명의 글로벌 취재망!

연합뉴스는 전 세계 28개국 38개 지역 총 60여 명의 해외 취재망을 통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소식을 6개 언어로 서비스함으로써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LOBAL NEWS FINDER

국내 언론 중 최대의 해외 취재망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한국 소식을 우리의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전 세계 79개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뉴스 교류

AAP 호주
AFP 프랑스
Agerpres 루마니아
AKP 캄보디아
Anadolu 터키
ANA-MPA 그리스
ANI 인도
ANP 네덜란드
ANSA 이탈리아
ANTARA 인도네시아
AP 미국
APA 오스트리아
APP 파키스탄
APS 알제리
AzerTAc 아제르바이잔
Bakhtar 아프가니스탄
BELTA 벨로루시
BERNAMA 말레이시아
Bloomberg 미국
BNA 바레인
BSS 방글라데시
BTA 불가리아
CNA 대만
CNA 키프로스
CTK 체코
dpa 독일
EFE 스페인
epa 독일
GNA 가나
HINA 크로아티아
IRNA 이란
ITAR-TASS 러시아
JANA 리비아
JIJI 일본
KABAP 키르기스스탄
KAZINFORM 카자흐스탄
KCNA 북한
Khabar 카자흐스탄
KPL 라오스
KUNA 쿠웨이트
Kyodo 일본
LANKAPUVATH 스리랑카
LUSA 포르투갈
MAP 모로코
MENA 이집트
MNA 이란
MONTSAME 몽골
MTI 헝가리
Notimex 멕시코
NTB 노르웨이
ONA 오만
PA 영국
PAP 폴란드
PETRA 요르단
PNA 필리핀
PPI 파키스탄
PTI 인도
QNA 카타르
Reuters 영국
RIA-NOVOSTI 러시아
RSS 네팔
Rossiya segodnya 러시아
SABA 예멘
SANA 시리아
SPA 사우디아라비아
TANJUG 세르비아
TAP 튀니지
TASR 슬로바키아
TELAM 아르헨티나
TNA 태국
Trend 아제르바이잔
Ukrinform 우크라이나
UNB 방글라데시
UNI 인도
UPI 미국
UZA 우즈베키스탄
VNA 베트남
WAM 아랍에미리트
Xinhua 중국

MULTIMEDIA NEWS PRODUCER

주요 연합뉴스 상품

뉴스리더, 프리미엄뉴스, 홈페이지, 제휴를 맺은
포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주요 연합뉴스 서비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뉴미디어 플랫폼에 서비스

텍스트와 사진, 그래픽, 인포그래픽, 영상 등 멀티미디어 뉴스 공급을 강화해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뉴스통신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요 연합뉴스 **상품**

신문, 잡지, 인터넷, 방송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뉴스 상품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뉴스 상품

국내 최고의 종합뉴스와 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전용 단말기 서비스인 '뉴스리더', 웹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 단말기 서비스 '프리미엄뉴스'가 있습니다.

인물

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및 북한 주요인물의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뉴스리더, 프리미엄뉴스, 제휴를 맺은 포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며, 이 가운데 2만 4천여 명을 엄선해 '한국인물사전'으로 제작,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판 상품

국내외 여행지와 명소를 소개하고 각종 레저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지 '연합 이매진'(Yonhap Imagine)과 국내외 각 분야별 주요 사건, 사고와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록한 국문 '연합연감' 및 영문 'KOREA ANNUAL', 북한 뉴스 전문 영문 월간지 'Vantage point' 등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

KTX와 공항철도(A'REX)의 영상정보서비스는 최상의 콘텐츠와 최적의 환경을 통해 승객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국내외 속보, 문화 정보, 다큐멘터리,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객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연합뉴스는 일반 국민들도 빠르고 편리하게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yonhapnews.co.kr

주요 연합뉴스 **서비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국내뉴스

한국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뉴스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워싱턴, 베이징, 도쿄, 파리, 모스크바 등 전 세계 38개 지역에 파견된 특파원과 통신원 등 해외 취재망을 통해 지구촌 곳곳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6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 각 분야 주요뉴스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6개 외국어로 옮겨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북한 및 한민족 뉴스

2002년 12월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과 뉴스교류 협정을 맺어 북한 내 소식을 빠르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뉴스

연합뉴스는 국내 최고의 보도 사진 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예, 과학 등에 관한 다양한 사진을 국내 언론, 출판 및 광고회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 영상 뉴스 등 멀티미디어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Q&A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 수호를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꼭 필요한가요?

연합뉴스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뉴스통신진흥법이 2003년 발효됨에 따라 연합뉴스는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창'이자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창'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만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연합뉴스는 어떤 매체인가요?

연합뉴스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사는 독자적인 취재 조직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합니다.
AP(미국), 로이터(영국), AFP(프랑스), 신화(중국), dpa(독일), 이타르타스(러시아), 교도(일본) 등 보통 한 국가를 대표하는 뉴스통신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연합뉴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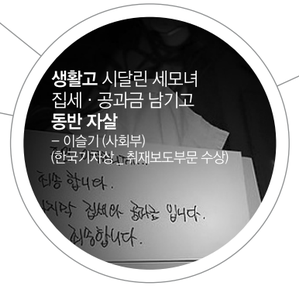
연합뉴스는 국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별 언론사가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공공재 성격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만드는 국제뉴스, 외국어뉴스 해외 배포, 국내 지역 뉴스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북한 전담 부서와 재외동포·다문화 뉴스 전담 부서 등은 모두 '공익 기능' 수행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는 정보주권 수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의 지위에 대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뉴스, 외국어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재외동포와 다문화 뉴스 등은 기업 차원의 수익성만 본다면 다른 민간 언론사는 대규모 취재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런 '공공재' 성격의 뉴스 콘텐츠 생산에 200명에 육박하는 해외(60명)와 지방(130여 명) 취재망, 50여 명의 외국어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특종 기사 · 사진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 김주성 기자 (한국기자협회 _ 이달의 보도사진 수상)



생활고 시달린 세모녀
집세 · 공과금 남기고
동반 자살
– 이슬기 (사회부)
(한국기자상 _ 취재보도부문 수상)

수백억 벌금 미납
대주그룹 회장
해외 호화생활
– 박성우, 전승현, 손상원
(광주·전남 취재본부)
(한국기자상 _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수정' 압력에 경악"
집단성명
– 노효동, 장재순 특파원
(연합뉴스 우수기사 _ 취재보도 부문)

B-2 **한반도 출격**
– 이정훈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 _ 보도사진상 수상)

아현고가, '역사의 뒤안 길로'
– 김도훈(사진부)
(한국기자협회 _ 이달의 보도사진 수상)

YONHAP NEWS AGENCY

365일

세상 모든 뉴스의 시작이자 뉴스의 중심

언론기관으로서 연합뉴스가 추구하는 최고 가치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공정 보도'입니다.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뉴스 · 정보의 독점과 왜곡을 막는 데 힘을 모으며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 더 나아가 글로벌 뉴스통신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Tel 02.398.3114 Fax 02.738.0820
www.yonhapnews.co.kr